

존재의 이유 있었네...영암군민속씨름단 또 전국 최강

문경장사씨름대회 김민재 백두장사 포효 최성환 한라장사 등극 단체전도 정상에 올라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전국 최강팀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최근 열린 위더스제약 2023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 한라장사를 석권한데 이어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씨름단 존재여부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암군민속씨름단은 다시 한번 전국 최강 씨름단으로서 존재 이유를 입증했다.

백두급(140kg 이하) 신형강자 김민재(21)는 지난 27일 경북 문경시 문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백두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고교 시절 라이벌인 최성민(태안군청)을 3-1로 꺾었다.

올해 실업 무대에 입성해 1월 설날 대회 백두장사에 등극한 김민재는 이번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자신의 3번째 백두장사이며, 천하장사 1회를 포함하면 개인 통산 4번째 장사 타이틀이다.

울산대 재학 중이던 지난해 6월 단오 대회에서 생애 첫 백두장사에 오른 김민재는 이후 출전한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1985년



백두장사 김민재



한라장사 최성환

이만기 이후 37년 만에 대학생 천하장사로 이름을 올렸고, 실업 무대에 입성한 올해 설날 대회와 문경 대회까지 4개 대회를 제패했다.

이번 대회 8강과 4강에서 각각 윤성희(동작구청)와 김진(증평군청)을 2-1로 물리친 그는 개인 통산 5번째 장사에 도전한 최성민과 대결에서도 물러가지 않았다.

첫 번째 판 경고 두 장을 받아 점수를 내준 김민재는 두 번째 판에서 잡채기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

고, 이어진 경기에서 발목걸이와 들배지기로 최성민을 눕히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같은 날 열린 단체전(팀 간 7전 4승제·개인 간 3전 2승제)에서도 김민재는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신생팀인 MG세마을금고씨름단을 4-2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최성환(31)은 지난 26일 같은 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박민교(영인특례시청)를 3-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문경장사씨름 단체전 정상에 오른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뒷줄 왼쪽 네번째) 감독과 선수들. /연합뉴스

이로써 최성환은 올 시즌 처음이자 개인 통산 11 번째 장사에 올랐다.

8강에서 김부호(울주군청)를 2-1로 꺾은 그는 4강에서 한술밥을 먹는 차민수도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최성환은 박민교를 상대로 잡채기와 들배지기를 성공시켜 2-0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세 번째 판에선 박민교가 들배지기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네 번째 판 최성환이 다시 들배지기로 응

수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한편, 우승의 영암군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씨름단의 존치와 투명한 운영을 요구한 공론화위원회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군민이 인정한 씨름단으로서 재출발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성적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씨름단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체고 김채연·순천시청 최미선 '경기부문 우수상'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 체육대상엔 펜싱 최인정

김채연(자전거·전남체고), 최미선(양궁·순천시청)이 대한체육회가 주는 경기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 펜싱 여자 에페의 간판 최인정(33·계룡시청)은 체육대상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69회 체육상 시상식을 열어 최인정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최인정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여자 에페 단체전 우승에 힘을 보태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그랑프리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현재 여자 에페 개인 세계랭킹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최인정을 비롯해 이날 시상식에선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스포츠 가치 등 8개 부문에서 109명, 7개 단체가 상을 받았다.

경기 부문 최우수상은 배드민턴 김혜정(삼성생명)과 펜싱 오상욱(대전시청)에게 돌아갔다.



전남체고 자전거 김채연

지도 부문 최우수상은 태권도 정동혁 감독(삼성애스원)과 피겨스케이팅 신혜숙 지도자(대한빙상경기연맹), 심판 부문 최우수상은 빙상 최용구 심판(대한빙상경기연맹)이 받았다.



순천시청 양궁 최미선

경기 부문 우수상에는 김채연, 최미선을 비롯해 근대5종 김선우(경기도청), 빙상 김예림(단국대), 핸드볼 여자 청소년 대표팀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부상' 나달, 파리바오픈 테니스 불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8위 라파엘 나달(37)이 부상으로 BNP파리바오픈에 불참한다고 영국 BBC가 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미국 인디언웰스에서 오는 6일 시작하는 파리바오픈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마스터스 1000 대회다.

마스터스 1000은 4대 메이저 대회, 연말 파이널 스다음으로 랭킹 포인트를 많이 준다.

나달은 또 이달 20일 시작하는 미아메이오픈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나달은 지난 1월 엉덩이 부상을 당고 입힌 호주 오픈 2회전에서 매켄지 맥도널드(미국)에게 지면서 탈락한 뒤 코र्ट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나달이 6-8주는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달이 최근 대부분 시간을 물리치료와 실내 운

동에 쓰면서도 점차 코트 훈련량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결국 파리바오픈에는 나서지 못하게 됐다.

나달의 코트 복귀전은 그가 강세를 보여온 4-5월 '클레이 코트 시즌'의 첫 마스터스 1000 대회인 4월 몬테카를로 마스터스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달은 이 대회에서 통산 11차례 우승했다.

나달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팬들을 만나지 못하게 돼 슬프다"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힘 모은다

전남도체육회·한국체육학회·목포대 업무협약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가운데)와 한국체육학회(회장 이한경), 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았다.

〈사진〉도체육회는 최근 체육회관에서 한국체육학회, 목포대학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체육회와 한국체육학회, 목포대학교 3개 기관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15년만에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체육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체육학회는 16개 유관학회와 함께 한국체육의 발전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전남체육의 미래를 위해 연구하고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목포대와 한국체육학회 간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한국체육학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목포대학교에서 제61회 한국체육학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체육진흥에 대한 조사·연구를 합동으로 진행, 대학스포츠 발전과 체육학 발전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목포대는 현재 검도, 롤러, 배구, 농구 등 4개 종목에서 우수 선수들을 육성, 도대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다.

송진호 회장은 "올해는 전남체육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민선 2기 전라남도체육회가 출범하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등 전남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체육학회와 함께 연구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대외비, 바다 탐험대 육포넛 육지수호 대작전 : 열대우림을 지켜라!
2관	서치 2
3관	명종이, 더 웨일
4관	카운트
5관	엔트맨과 와스프: 쿼텨메니아
6관	대외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엔트맨과 와스프: 쿼텨메니아
7관 씨네카를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크리드 3, 아메이징 모리스, 리틀 엘렌: 외계인과 인테나 대소동
8관 씨네카를	카운트,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년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

즐거움 문화산책